

석 사 학 위 논 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지도교수 허 철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민 철

2005년 8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지도교수 허철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민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장 _____인

<국문 초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양 민 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자아상태는 배경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에 대해 질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과 유형을 검사하기 위하여 1982년 Howard Barnes와 David H. Olson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를 민혜영(1990)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1993)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청소년용 이고그램 검사지(Ego-gram Check List)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청소년의 자아상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상태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아상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지각하고 있다.

둘째, 부모의 학력에서 어머니의 학력은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셋째,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가 높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양육적 어버이자아(NP)와 자유 어린이자아(FC)가 높아졌다.

넷째,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른 자아상태(A)가 높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비판적 어버이자아(CP)와, 아버지의 학력은 양육적 어버이자아(NP)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섯째,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어른자아(A)와 자유 어린이자아(FC)가 높으며, 순응 어린이자아(AC)는 낮아졌다.

여섯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어른자아(A)와 양육적 어버이자아(NP), 자유 어린이자아(FC),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가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의존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순응 어린이자아(AC)는 낮아졌다.

여덟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때, 의존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순응 어린이자아(AC)는 높아지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의 특징을 지닌 어른자아(A)는 낮게 형성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개방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상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들의 자아상태에서 어른자아상태(A)를 높여주고, 순응 어린이자아(AC)를 감소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개방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의사소통의 개념 및 유형	5
2. 자아상태의 개념 및 유형	13
3. 의사소통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20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3
1. 연구의 대상	23
2. 측정도구	25
3. 자료처리	27
IV. 연구결과 및 해석	28
1.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28
2. 배경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유형	34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40
V. 요약, 결론 및 제언	45
1. 요약	45
2. 결론	50
2. 제언	51
참고문헌	52
Abstract	57
부 록	60

표 목 차

<표 II- 1> 일반적인 이고그램의 해석	19
<표 III-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III- 2> 의사소통 유형의 신뢰도 검증	26
<표 III- 3> 자아상태의 신뢰도 검증	27
<표 IV- 1>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28
<표 IV- 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29
<표 IV- 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30
<표 IV- 4>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31
<표 IV- 5>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32
<표 IV- 6>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 유형	34
<표 IV- 7>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35
<표 IV- 8>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36
<표 IV- 9>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37
<표 IV-10>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38
<표 IV-11>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아상태 분포	40
<표 IV-12>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분석	41

그 립 목 차

[그림 II-1] 자아상태-기능분석	16
[그림 II-2] 바람직한 이고그램 유형	18
[그림 IV-1] 의사소통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	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과 더불어 처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인간 형성을 위한 최초의 훌륭한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또한 사람은 가정생활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가치, 태도, 규범을 내면화하고 주체의식을 형성하며 인성발달을 이루게 된다. 이때, 가족내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또는 더욱 배타적으로 이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모-자녀는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 부모와의 경험 공유를 통해 상호관계를 확립하고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건강한 성격이 형성되어진다. 이처럼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화 및 심리·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도의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된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천에 따라 가족의 구조 및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에서 비롯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애착으로 자녀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한 정신적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편부모 가정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부족으로 자녀들의 심리적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명 N 세대라고 지칭되는 청소년 세대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만의 새로운 사회문화를 형성해 감에 따라 점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알려지기로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서 더 이상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덜 제한적이기를 바라고 부모를 구세대로 생각하여 대화를 회피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Erikson(1959)은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청소년들은 자유와 독립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이중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수용적인 지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증진될 것이며, 부모-자녀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라 상호간에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대화방식으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세대간의 간격이 좁혀지고 갈등을 감소시켜 주며(장호선, 1986),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격 형성과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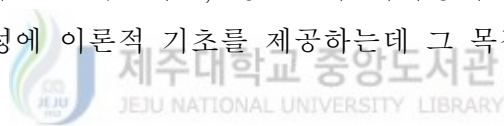
Eric Bern(1910-1970)에 의해 창안된 교류분석에 의하면 아동들은 어린 시절 부모들의 양육방식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어지며,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뇌리에는 어버이자아, 어른자아, 어린이 자아라고 부르는 세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어, 생활의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자아상태가 재현된다고 한다. 또한 교류분석에서 인간의 모든 적응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있다고 보고 그 의사소통 과정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고 하고 있다. 즉, 건강한 부모의 역할의 결과로 자녀는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게 되지만, 반면 부정적인 부모역할행동에 의하면 부정적인 생활자세가 자녀에게 형성된다고 하며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우재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유성희(2002)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자아상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판적인 어버이자아(CP), 양육적인 어버이자아(NP), 어른자아(A)의 자아상태가 발달 형성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반면에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에서는 순응하는 어린이자아

(AC)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조용현(1997)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그리고 가족이 화목할수록 자녀는 어른자아(A) 및 양육적 어머니자아(NP)는 높게 나타났으며,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AC)는 낮게 나타났다고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과 연구에서 시사하듯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도 가족의 상호작용의 요체이자 가족 역동성을 이해하는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들의 자아상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역시 청소년기 자녀의 성격형성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류분석에서 성격 이론의 구조를 설명하는 자아상태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봄으로써 가정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자아상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자아상태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자아상태는 배경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와의 대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청소년의 자아상태는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와의 대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들의 자아상태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관찰법,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에만 국한하였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와 자녀 각각에 대하여 쌍방향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만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념과 유형, 자아상태의 개념과 유형,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아상태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의사소통의 개념 및 유형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Communis」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영어에 해당되는 표현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의견, 신념, 감정 등을 “공유” 또는 “공동화”하는 행위라 할 수 있듯이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생각과 느낌, 가치관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김성윤, 2001).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Gross와 Knoll(1980)은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Knezevich(1975)은 의사소통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정보, 지식, 감정, 사상을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정명희, 1988, 재인용).

Myer와 Myers(1973)는 의사소통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개체이며, 둘째, 의사소통은 자극과 반응, 수신자와 송신자, 메시지, 기호화 과정, 기호화 해독과정, 피드백, 자각, 자기 표현 등으로 구성된

인간관계의 매개체이고, 셋째, 의사소통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거쳐 계속되며, 넷째,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속되므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섯째,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사상, 느낌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고, 여섯째,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또한 Galvin과 Bronnmel(1986)은 가족의사소통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하나의 “상징적 거래과정”이라고 보면서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표정, 눈맞춤, 몸짓, 움직임, 자세, 용모와 공간적 거리를 포함하는 모든 비언어적 행동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만일 가족간에 의미를 상호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최인경, 2001, 재인용).

의사소통의 정의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정명희(1988)는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최홍규(2000)는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의 정보 즉 생각, 의견, 사실,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은경(1992)은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방향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란 「부모-자녀 사이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생각, 느낌, 감정, 사상, 태도 등을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도 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의사소통의 유형

의사소통 유형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 이라기 보다는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나 전달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성원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교류와 개인의 생각이나 관심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Bernstein(1971)은 가족역할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 유형을 지위 지향성과 인성지향성으로 분류하였다. 지위지향성은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입각하여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며 개인의 행동이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폐쇄적 의사소통양식을 가지게 된다. 인성지향성은 가족 구성원의 귀족적 지위보다는 심리적 속성이나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므로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며 따라서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권혜진, 1993, 재인용).

Satir(1972)는 의사소통을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맥락에서 언어적인 면의 말과 비언어적인 면의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숨쉬는 속도, 음정 등과 내면적인 감정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의사소통이란 주고받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은 두 가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외현적은 수준인 의사소통으로 문자적인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적 의사소통(meta communication)의 수준으로 의사소통의 문자적인 내용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즉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로 메시지가 갖는 태도나 말하는 사람의 의사소통할 때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태도나 감정, 의도 등을 나타낸다. Satir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의사소통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으로 나눌 수 있다(송상홍, 2004, 재인용).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I-message와 You-message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Gorden(1975)은 You-message는 명령, 경고, 설교 등으로 자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형태의 의사소통을 말하며, I-message는 자녀의 행동

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느낌과 입장을 알려주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I-message에 의한 의사전달이 자녀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갖게 하여 행동변화에 효과를 가지게 하며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Barnes 와 Olson(1982)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 모형(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적이고 순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그것을 방해하는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순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명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 공감, 반영적 경청,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 등을 의미하며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여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상호간에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이중속박(double-bind) 및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을 지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이외에도 Hawkins, Weisberg와 Ray(1980)는 언어적 표현정도와 자기개방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언어적 표현이 개방적이고 감정노출 정도가 높은 친숙형과 언어적 표현이 개방적이나 감정노출 정도가 낮은 분석형,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언어적 표현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노출 정도가 높은 억제형, 언어적 표현이 폐쇄적이고 감정 노출정도가 낮은 차단형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백승미, 2003, 재인용).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한 국내의 연구로는 송성자(1985)는 한국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권위지향형·불성실지향형·희생지향형·지배지향형·소심지향형으로 분류하였고, 홍기선은(1985)은 대인 의사소통 과정을 메시지 흐름의 방향에 따라 일방적 유형, 반응적 유형, 상호작용적 유형으

로 나누었으며, 이정우와 김규원(1989)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선택과 전달요소를 고려하여 쌍방 차단형, 자녀 차단-어머니 개방형, 자녀 개방-어머니 차단형, 쌍방 개방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여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해 보면 크게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리고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기능적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두려운 것, 기대하는 것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나타내며, 활기 있고 자발적, 온정적, 긍정적이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유형을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서로 훼방하는 것, 투사하는 것, 거의 관계하지 않는 것, 고집스럽고 의미 없으며 불명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의사소통을 폐쇄형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아상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족 기능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중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Barnes와 Olson이 분류한 의사소통 유형에 기초하고자 한다.

3)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간은 사회적인 틀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하여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보편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특히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대인관계로 자녀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가치, 태도, 규범을 내면화하고 주

체의식을 형성하게 되며, 욕구 충족 및 안정감과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화 및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Adams(1980)는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대화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역시 서로 긴밀한 대화를 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긴밀한 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들이 주관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기의 갈등과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고, 의사소통 가족치료자인 Satir(1972)는 아동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제반 문제의 원인의 관련변인으로 가족간의 갈등과 무관심, 의사소통 단절을 꼽고 있다.

Thomas(1977)는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고,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가족을 보면 가족 성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공통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백승미, 2003, 재인용).

Rueter와 Conger(1995)는 온정이 넘치고 지지적인 가정 분위기는 부모-자녀의 의견 불일치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적대적이고 고압적인 가정 분위기는 부모와 자녀의 의견 불일치와 가정의 기능 마비를 불러온다고 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김혜숙(2003)은 가족 안에서의 의사소통은 의사전달 뿐만 아니라 관계규정과 행동양식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경계선, 친밀감, 위계질서, 규칙, 역할 등을 표현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고 있으며, 김성윤(2001)은 부모와 자녀는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부모에게 자유롭게 솔직하게 전달함으로써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정은정(2002)은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 부모와의 경험공유를 통해 상호관계확립으로 자신감 및 안정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인생주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적절한 새로운 습관, 태도, 행동양식을 형성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심리적 갈등을 체험하며 그로 인해 인격형성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Erikson(1959)이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청소년들은 자유와 독립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이중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수용적인 지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지속되던 부모에의 의존과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와 성급한 자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욕구 사이에 잦은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부모-자녀의 역할 재조명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며,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4)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자녀들의 연령, 성별, 부모의 연령, 가족 형태, 부모의 직업 유무, 부모의 교육 수준, 출생 순위, 형제 수, 대화 시간, 가정 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개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병리적인 인성이 감소되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며,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민혜영, 1990 ; 권혜진, 1993 ; 이혜숙, 1998 ; 김성윤, 2003).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 국길숙(2003)과 노선(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성인 아버지와의 개방

형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는 허용적이고 관용적이며, 타인을 존중하고 포용력이 높아지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개념과 행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응집과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으나, 권혜진(199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은경, 1992 ; 권혜진, 1993 ; 이혜숙, 1998). 한편 민혜영(1990)은 전문대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국길숙(2003)은 아버지가 중졸 이하일 때,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권보연(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대졸인 경우보다 더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고 있다. 반면, 김양숙(1995)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단순한 관계보다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상호 친밀한 분위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대화 시간이 길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장호선, 1986 ; 민혜영, 1990 ; 이정우, 김규원, 1990 ; 권보연, 2000 ; 최인경, 2001). 장근화(198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들은 70%가량이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화시간은 보통 20분-60분 정도로 아버지 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자아상태의 개념 및 유형

1) 자아상태의 개념

(1) 구조분석에 의한 자아상태

사람들은 자기의 내부에 세 가지 부분을 갖추고 그것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아상태라고 한다. Eric Berne은 자아상태를 “사고, 감정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통합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성격을 자아상태를 통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구조분석이라 하며, P-A-C 모델이라고도 한다.

세 가지 자아상태, 즉 아버지 자아상태(P)와 어른 자아상태(A) 및 어린이 자아상태(C)의 이 세 가지 성격 구성요소는 각각 분리되어 특이한 행동의 원천이 된다. 세 가지 자아상태는 Freud의 id, ego, superego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자아상태들은 일관성 있고 예언 가능한 순서로 발달한다. 즉 P-A-C 중 가장 먼저 발달되는 자아상태로는 C로서, 이 C는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자신의 경험한 쾌·불쾌의 감정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만족하고 유쾌한 경험에 감각적 반응을 보이면서 발달한다. 그 다음에 부모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함으로써 P를 발달시키며, 마지막에는 C와 P의 단계를 거쳐 판단과 조정력을 발휘하고 자기세계의 의미를 탐색하는 A가 발달한다(고명규, 1997).

이 세 가지 자아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자아상태(P)는 5세 이전에 양부모의 언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려서 내면화시킨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아동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들을 뿐만 아니라 모방하고 학습하면서 그 내용이 아동의 마음속의 테이프에 기록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학습된 생활개념이며, Freud의 superego에 상응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어른 자아상태(A)는 생후 10개월경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독창적 사고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감을 갖게 되면서 점진

적으로 나타난다. 이 어른자아는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데, 외계는 물론 개체의 내적 세계와 다른 자아상태(즉 P와 C)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이용한다. 결국 이 어른자아는 Freud의 ego와 같이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 자료처리, 현실적인 가능성을 추적하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자료처리 컴퓨터라 할 수 있다.

셋째, 어린이 자아상태(C)는 Freud의 id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어린 시절의 감정적 반응의 흔적을 저장해 놓은 곳이다. 즉, 인간 내에서 생득적으로 자연히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감정, 그리고 출생 후 5세 경까지의 외적 사태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양식이 내면화된 것이 C이다(김성희, 1993).

(2) 기능분석에 의한 자아상태

개개인의 자아상태 P-A-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한 ‘구조분석’에 대하여 그 사람의 자아상태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실제면에서 알기 위한 방법이 ‘기능분석’이다. 기능분석은 구조분석 P-A-C를 더욱 기능적으로 세분화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아버지 자아상태 P를 더욱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CP(비판적 아버지 자아)와 NP(양육적 아버지 자아)로 나누며, 어린이 자아상태 C를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와 AC(순응한 어린이 자아)로 나눈다.

기능분석에 의한 각각의 자아상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아버지자아(CP)는 주로 비판, 비난, 질책을 한다. 양심이나 이상 모두 깊이 관계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살아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 등을 가르쳐주며 엄격한 면을 나타낸다. CP가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명령이나 지시 등 자기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지배적인 언행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CP가 강한 사람과 접하게 되면 받는 쪽으로 보서는 ‘위압적이고 자신 과잉형의 불쾌한 성격의 사람’으로 비치며 저절로 경원하고 싶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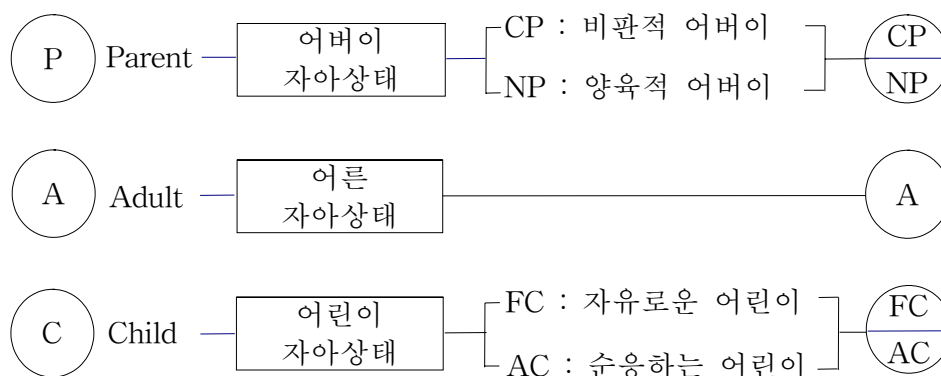
둘째, 양육적 어버이자아(NP)는 어린이 성장을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부분이며 동정적, 보호적, 양육적이다. 상대방이 원조를 필요로 할 때 부모처럼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며 따뜻한 말을 해준다. NP는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윤희유와 같은 것으로써 상대방의 자립 또는 성장에 깊이 관계를 맺고 있어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셋째, 어른 자아상태(A)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컴퓨터에 비유되는 부분이다. A의 작용은 사실중심으로 관찰하여 데이터를 수집, 정리, 통합하는 것이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적절한 해결법을 찾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등 냉정한 계산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교류 분석에서 가끔 A의 작용에 의한 인격의 통합이 시도된다. A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냉정한 부분이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 같이 A는 지적으로 적응능력이 풍부해서 현실음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넷째, 자유로운 어버이자아(FC)는 누구에게나 구속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부분으로 양친의 행실(품행)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FC는 감정적, 본능적, 자기중심적, 적극적이며 호기심이나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현실을 생각하는 일없이 즉석에서 쾌감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좋은 면에서 명랑하고 사양함이 없이 천진난만하고 화를 내더라도 오래가지 않으며 그 자리에 맞는 감정표현을 한다. 이 C가 적절히 잘 작용하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매력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순응하는 어버이자아(AC)는 성장과정에서 양육자의 애정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자연적인 자기를 억제하고 상대방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겠다는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AC이다. AC는 순종형이고 참을성이 있어 '말을 잘 듣는 아이' 편에 속하므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나가는 것같이 보이나 실제의 자기를 항상 억제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숨기고 있다. 감정을 억압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다든가 슬픔에 잠기기 쉬운 면이 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나타

내기가 힘들어지므로 명량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음울한 면이 어딘가에 보이게 된다. AC가 너무 높으면 간단히 타협이나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나타나던 호의는 가짜의 감정인 것이다. 그 이면에 가끔 굴절된 공격성이 감추어져 있다(김규수, 류태보, 2001).



[그림 II-1] 자아상태-기능분석 김규수, 류태보, 2001, p53.



2) 이고그램의 개념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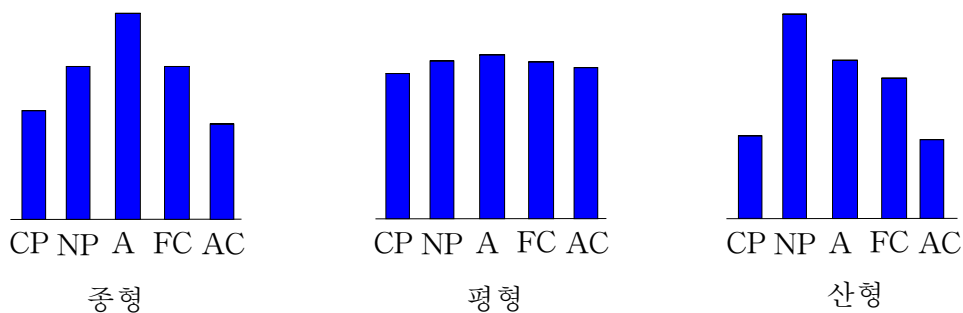
이고그램(Egogram)은 교류분석의 창시자 Bern의 수제자인 John Dusay(1977)에 의해 각각의 자아상태 각 부분끼리의 관계와 외부로 방출되고 있는 심리적 에너지의 양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다섯 가지 기능이 서로 다른 양을 지닌 채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된다. 가장 높은 막대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능을 가리키며, 막대의 높이가 낮을수록 그만큼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의 양이 작다고 할 수 있다. Dusay는 이고그램을 고안하면서 불변성 가설(constancy hypothesis)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아상태가 급격하게 활동할 때는 다른 하나 또는 다른

상태의 자아들은 이에 보상하기 위해 위축하게 된다. 즉 에너지 전체의 양이 불변하도록 심리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너지 일정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Dusay(1977)는 자신의 이고그램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내가 적게 가지기를 원하는 다른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고그램은 직접적인 판단을 원리로 하여 작성한 그래프에 의하여 자아상태의 에너지 배분을 알고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나 진단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성격 중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 새롭게 개발하고 싶은 부분을 체크하여 자기 개발의 참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고그램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객관성이 모자라다는 비판에 따라 미국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이고그램 작성이 시도되었는데 특히 Robert Heyer(1979)는 질문지법 이고그램을 완성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스기다(1974), 이시이(1977), 그리고 동경대학의 TEG 등이 논리적으로 객관성이 높은 질문지법을 개발한 것을 1990년 사단법인 한국 교류분석협회가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표준화 이고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이도영외, 1999, 재인용).

이고그램은 사람들 각자의 기능적 자아상태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예시해 주는 것으로서 다섯가지 심리적 힘은 개인마다 그 양이나 균형이 다르게 정립되어 있다. 또한 이고그램은 나이, 발달단계, 생활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각자의 개성이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성격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P, A, C가 균형 있게 짜여지며, 자아상태들 간에 경계가 뚜렷하며, 경우에 따라 P, A, C간의 에너지 이동이 자유로우며, 특정한 자아상태에 쏠림이나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 건강한 성격이란 세 가지 자아상태가 모두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란 성격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 할 수 있다(고명규, 2003).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이고그램 유형으로는 스키다 미네야스(1988)는 NP가 정점을 이루고, A와 FC가 높으며, CP와 AC가 내려가는 산형(山型)을 제시하고 있으며, Dussay(1984)는 서구인에 있어서 바람직한 이고그램 유형으로 A를 정점으로 하는 종형(鐘型, Bell)과 심리적 에너지가 아주 적절하게 배분된 균형 잡힌 평형(平型)을 들고 있다.



[그림 II-2] 바람직한 이고그램 유형

자신의 성격의 유형이나 성격의 장점과 약점을 알아내는 방법으로서의 이고그램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어느 자아가 우위 이고그램인지를 파악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아상태를 점검하여 판단한다. 만약 두 가지의 자아상태가 같은 우위 점수를 나타내면 이 두 가지가 다 우위한 이고그램 타입으로 판단한다. 둘째, 가장 낮은 자아상태의 성질을 살펴보고 끝으로 나머지 자아상태의 고저를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고그램을 더욱 자세히 볼 때에는 CP, NP의 (P)와 FC, AC의 (C)의 높이를 전체로 비교한다. (P)가 높은 사람은 CP, NP를 비교하여 CP쪽이 높으면 엄하고 비판적인 아버지 마음이 강하고, NP쪽이 높으면 온화하고 보호적인 아버지 마음씨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C)가 높은 사람은 FC와 AC를 비교하여 FC쪽이 높으면 생각대로의 감정표현을 하는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씨가 강하고, AC쪽이 높으면 자신을 억제하여 남에게 순종하는 어린이 마음씨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고그램에서 (A)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A)는 다른 자아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고그램은 (A)의 조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A)가 어떤 자아상태 보다 작은 경우는 (A)보다 큰 자아상태를 조절할 수 없다고 보며, (A)보다 큰 자아상태가 전체의 경향을 좌우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조정기, 1998).

우재현(1997)은 한국인의 이고그램 유형을 234개의 패턴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고그램의 일반적인 해석은 아래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일반적인 이고그램의 해석

우위 타입	기본적 성질	낮은 타입	기본적 성질
CP 우위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이 높고 독선적이다. · 완고하고 징벌적이다. · 타인 부정적이다. 	낮은 CP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 남에게 멸시받기 쉽다 · 비판 할 줄 모른다.
NP 우위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이 선하고 공감적이다. · 돌보기 좋아한다. · 타인 긍정적이다. 	낮은 NP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적이며 무관심하다. ·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 · 외롭고 우울하고 인색하다
A 우위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뇌 명석하고 논리적이다. · 합리적이고 차갑다. · 중립적이다. 	낮은 A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합리적이며 감정적이다. · 현실인식이 왜곡되어 있다 · 생각하기를 괴로워한다.
FC 우위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기 좋아하는 행동 ·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다. · 자기 긍정적이다. 	낮은 FC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한다. · 창의력과 직관력이 낮다. · 향락적인 사람을 싫어한다.
AC 우위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리광 부리고 의존적이다. · 타인에게 순응적이다. · 자기 부정적이다. 	낮은 AC 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어울리기 어렵다. · 완고하며, 융통성이 없다. ·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3. 의사소통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인간은 태어나면서 여러 형태의 끊임없는 대인관계를 갖게 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그 관계 형성의 기본요소인 대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교류분석 이론은 인간의 모든 적응 문제가 의사소통에 있다고 보고 그 의사소통 과정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교류분석 상담이론의 최종 목표는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자기와 타인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사고, 감정, 행동의 3가지 차원에서 조화롭게 통합하여 인간이 서로 “마음의 창”을 열어 놓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있다.

교류분석 이론은 구조분석, 의사거래분석, 게임분석, 각본분석의 네 가지 분석방법을 주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네 가지 분석법이 의사소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요약하면 첫째, 구조분석에서는 이고그램을 통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지각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의사소통의 개선을 기할 수 있다. 둘째, 의사거래분석에서는 의사소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해서 자신과 타인간의 의사소통 양식을 시각적으로 깨닫게 되고, 갈등적 대화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피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셋째, 게임 분석에서는 전형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를 드러내는 ‘게임’을 지각하고 이를 중지하게 함으로 의사소통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개선을 기할 수 있다. 넷째 각본분석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교류로부터 받아들여진 메시지를 통하여 형성된 각본 중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패자의 각본을 인식하고 이를 재결단 하게 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뿌리깊은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기틀로 삼을 수 있다(정은정, 2002).

특히, 많은 연구들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희, 1989 ; 김양숙, 1995 ; 최인경, 2001 ; 김은주, 2002 ; 국길숙, 2003 ; 김근화, 2003).

이와 같은 연구에서 시사하듯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Gordon(1974)은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비판 등으로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교육에 많은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긴장이나 갈등을 생성하기도 하며, 이것이 심화되면 자녀의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문제까지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영웅(1986)은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구조분석과 의사거래 분석을 중심으로 TA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인간관계 개선에 효과적이며, 특히 의사소통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안정현(2000)은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 개방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정은정(2002)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자녀-부모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에서 순기능형 의사소통이 증진되었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용현(1997)의 '자녀가 지각한 가정환경 변인과 이코그램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그리고 가족이 화목할수록 자녀는 어른자아(A) 및 양육적 어버이자아(NP)는 높게 나타났으며, 순종하는 어린이 자아(AC)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박상예(2000)는 '고등학생의 자아상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구'에서 순응한 어린이자아(AC)가 높으면 자아정체감이 낮으며, 어른자아(A), 자유스런 어린이자아(FC), 양육적 어버이자아(NP)가 높으면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생활 자세와의 관계’에 관한 유성희(2002)의 조사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자아상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CP, NP, A의 자아상태가 발달 형성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반면에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에서는 AC 자아상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류분석의 자아상태와 의사소통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대부분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 관련하여 보고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교류분석이론이 자아상태를 활용해서 사람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언어와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이라는 데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상태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과 의사소통이 가족의 상호작용의 요체이자 가족 역동성을 이해하는 지침이 되며,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들의 자아상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소년은 인생주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적절한 새로운 습관, 태도, 행동양식을 형성해야 하는데서 오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심리적 갈등을 체험하며 그로 인해 인격형성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상급학교에 대한 압박감, 성적 저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불확실성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이해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서적인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실시에 따른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의 대상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일시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불완전한 응답을 한 16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36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 총 436명 청소년 중에서 남자가 222명(50.9%), 여자가 214명(48.1%)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성별, 부모의 학력, 그리고 부모와의 평소 대화시간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분포는 <표 Ⅲ-1>과 같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학생수(명)	비율(%)
성 별	남	222	50.9
	여	214	49.1
아버지 학력	중졸	55	12.6
	고졸	228	52.3
	대졸	153	35.1
어머니 학력	중졸	73	16.7
	고졸	271	62.2
	대졸	92	21.1
아버지와 대화시간	거의 안 함	114	26.2
	30 분 미만	148	33.9
	30분~1시간	110	25.2
	1시간 이상	64	14.7
어머니와 대화시간	거의 안 함	44	10.1
	30 분 미만	116	26.6
	30분~1시간	116	26.6
	1시간 이상	160	36.7

아버지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228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학교 졸업 153명(35.1%), 중학교 졸업 55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 271명(62.2%)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 92명(21.1%), 중학교 졸업이 73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아버지와 대화시간을 보면 30분 미만이 148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이 114명(26.2%)으로서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아버지와 30분 미만 대화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30분~1시간은 110명(25.2%), 1시간 이상은 64명(14.7%)에 그쳤다. 반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인 160명(36.7%)이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분~1시간이 116명(26.6%)으로 나타나 어머니와는 과반수 이상이 30분 이상 대화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30분 미만은 116명(26.6%), 거의 안 한다는 44명(10.1%)으로 조사되어 아버지와 대화시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자아상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과 유형을 검사하기 위하여 1982년 Howard Barnes와 David H. Olson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척도(open family communication)로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상호작용에 억압을 느끼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두 번째 영역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척도(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주제 선택에 조심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문항은 개방형 10개 항목과 폐쇄형 10개의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점까지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한 답변을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환산하여 개방형 10문항의 합산 점수를 개방형 점수로, 폐쇄형 10문항의 합산 점수를 폐쇄형 점수로 하였다. 개방형과 폐쇄형 의사소통 점수는 각각 10점에서 50점 사이에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은 0.6 이상으로 추출되었을 경우 측정척도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모든 요인별 0.6 이상으로 나타나 본 설문을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의사소통 유형의 신뢰도 검증

요 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 개방형	1, 3, 6, 7, 8, 9,13,14,16,17	0.90
부 폐쇄형	2, 4, 5,10,11,12,15,18,19,20	0.74
모 개방형	1, 3, 6, 7, 8, 9,13,14,16,17	0.92
모 폐쇄형	2, 4, 5,10,11,12,15,18,19,20	0.76

2) 이고그램 척도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Eric Bern의 교류분석에 근거하여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1993)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청소년용 이고그램 검사지(Ego-gram Check List)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이고그램 검사지는 5개의 자아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마다 10문항씩 모두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척도(5점 평정 척도)로 각 지표당 50점으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에너지가 그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청소년의 자아상태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신뢰도 조사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자아상태의 신뢰도 검증

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CP	1, 6,11,16,21,26,31,36,41,46	0.63
NP	2, 7,12,17,22,27,32,37,42,47	0.73
A	3, 8,13,18,23,28,33,38,43,48	0.62
FC	4, 9,14,19,24,29,34,39,44,49	0.75
AC	5,10,15,20,25,30,35,40,45,50	0.62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해 나가면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라는 주요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청소년의 자아상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상태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가설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성별, 부모 학력, 대화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구 분	남 (n=222)		여 (n=214)		전체 (n=436)		t
	M	SD	M	SD	M	SD	
부 개방형	32.05	8.32	30.84	9.02	31.46	8.68	1.465
부 폐쇄형	27.69	6.48	27.76	6.72	27.72	6.59	-0.115
모 개방형	36.17	7.50	37.66	9.22	36.90	8.41	-1.850
모 폐쇄형	26.76	6.32	26.50	6.94	26.63	6.62	0.419

<표 IV-1>에 따르면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남학생(M=32.05)이 여학생(M=30.8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여학생(M=37.66)이 남학생(M=36.1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구 분	아버지의 교육수준				
	n	M	SD	F	D
부 개방형	중 졸	55	29.67	7.59	1.818
	고 졸	228	31.80	8.94	
	대 졸	153	32.06	8.52	
부 폐쇄형	중 졸	55	28.36	5.45	0.678
	고 졸	228	27.64	6.72	
	대 졸	153	27.63	6.78	
모 개방형	중 졸	55	34.82	8.73	2.598
	고 졸	228	36.58	8.69	
	대 졸	153	38.13	7.71	
모 폐쇄형	중 졸	55	26.64	6.67	0.343
	고 졸	228	26.91	6.50	
	대 졸	153	26.20	6.83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서 아버지가 대졸(M=32.06)인 학력이 고졸(M=31.8), 중졸(M=29.6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도 대졸(M=38.13)인 학력이 고졸(M=36.58), 중졸(M=34.82)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구 분	어머니의 교육수준					
	n	M	SD	F	D	
부 개방형	중 졸(A)	73	29.60	8.56	3.477*	C>A
	고 졸(B)	271	31.17	8.59		
	대 졸(C)	92	31.64	8.60		
부 폐쇄형	중 졸	73	28.40	6.57	0.347	
	고 졸	271	27.62	6.67		
	대 졸	92	27.49	6.42		
모 개방형	중 졸	73	34.34	8.22	3.502*	C>A
	고 졸	271	37.14	8.42		
	대 졸	92	38.23	8.20		
모 폐쇄형	중 졸	73	27.56	6.12	0.775	
	고 졸	271	26.60	6.99		
	대 졸	92	25.99	5.82		

* p<.05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개방형 의사소통과 부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집단간 차이에서는 대졸인 어머니를 둔 학생의 모개방형 의사소통이 중졸 어머니를 둔 학생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모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대졸인 어머니를 둔 집단과 중졸인 어머니를 둔 집단간에 부개방형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4) 아버지와 대화시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아버지와 대화시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아버지와 대화시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구분	아버지와 대화시간					
	n	M	SD	F	D	
부 개방형	거의 안 함(A)	114	24.96	7.69	55.872***	D>C>B>A
	30 분 미만(B)	148	30.82	7.04		
	30분~1시간(C)	110	35.26	7.49		
	1시간 이상(D)	64	37.95	7.53		
부 폐쇄형	거의 안 함	114	30.22	7.02	11.655***	A>B>C>D
	30 분 미만	148	28.05	6.37		
	30분~1시간	110	26.23	5.44		
	1시간 이상	64	25.09	6.57		
모 개방형	거의 안 함	114	34.05	8.88	13.378***	D. C>B. A
	30 분 미만	148	35.70	8.35		
	30분~1시간	110	39.44	7.07		
	1시간 이상	64	40.38	7.52		
모 폐쇄형	거의 안 함	114	27.53	6.74	3.733*	A. B>D
	30 분 미만	148	27.40	6.75		
	30분~1시간	110	25.74	6.42		
	1시간 이상	64	24.80	5.98		

* p<.05, *** p<.001

위의 표에서 아버지와 대화시간에 따라 모든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개방형, 모개방형 의사소통은 높아졌다. 사후분석 결과 1시간 이상>30분~1시간>30분 미만>거의 안 한다는 집단간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Duncan의 사후분석에서는 '1시간 이상=30분~1시간'>'30분 미만=거의 안 한다'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의 안 한다'는 학생집단의 부폐쇄형 의사소통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부정적이었으며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모폐쇄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Duncan의 사후분석에서는 '거의 안 한다=30분 미만' > '1시간 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국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개방형과 모개방형 의사소통 차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부폐쇄형, 모폐쇄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구분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n	M	SD	F	D	
부 개방형	거의 안 함(A)	44	28.20	8.89	15.296***	D. C>B. A
	30 분 미만(B)	116	27.91	7.80		
	30분~1시간(C)	116	32.70	7.85		
	1시간 이상(D)	160	34.02	8.75		
부 폐쇄형	거의 안 함	44	27.95	6.10	12.113***	B>C. D
	30 분 미만	116	30.47	6.06		
	30분~1시간	116	27.54	6.30		
	1시간 이상	160	25.81	6.65		
모 개방형	거의 안 함	44	29.93	9.36	34.405***	D>C>B>A
	30 분 미만	116	33.97	7.89		
	30분~1시간	116	36.71	6.72		
	1시간 이상	160	41.08	7.40		
모 폐쇄형	거의 안 함	44	28.70	8.32	8.553***	A. B. C>D
	30 분 미만	116	27.82	6.11		
	30분~1시간	116	27.42	5.81		
	1시간 이상	160	24.63	6.57		

*** p<.001

위의 <표 IV-5>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라서도 부개방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의 집단간 차이는 '1시간 이상=30분~1시간' > '30분 미만=거의 안 한다'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서는 '30분 미만'의 부폐쇄형 의사소통이 가장 높아 부정적이었고, 다음은 '거의 안 한다', '30분~1시간', '1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서도 역시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높아졌으며,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는 각 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모폐쇄형 의사소통이 높아졌다. Duncan의 사후분석에서는 '거의 안 한다=30분 미만=30분~1시간' > '1시간 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사소통 유형 중 부개방형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변수는 어머니 학력($F=3.477, p<.05$),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55.872, p<.001$)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15.296, p<.001$)으로 파악되었으며, 성별과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부개방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부폐쇄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존재하는 배경변수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11.655, p<.001$)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12.113,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아버지 학력 및 어머니 학력은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개방형 의사소통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으로서 어머니 학력($F=3.502, p<.05$),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13.378, p<.001$)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34.405, p<.001$)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성별,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모폐쇄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존재하는 변수로서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3.733, p<.05$),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8.553, p<.001$)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아버지 및 어머니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유형

가설2. 청소년의 자아상태는 성별, 부모 학력, 대화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유형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 유형

구 분	남			여			t
	n	M	SD	n	M	SD	
CP	222	30.38	5.05	214	28.33	4.83	4.325***
NP	222	31.98	5.38	214	33.00	5.20	-2.007*
A	222	30.81	4.84	214	30.24	5.05	1.106
FC	222	32.39	6.60	214	33.75	6.15	-2.225*
AC	222	30.28	5.12	214	30.79	5.57	-0.988

* p<.05, *** p<.001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변수로는 남학생의 비판적 아버지아(CP)는 30.38로 여학생의 28.33에 비해 높게 나타나 CP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양육적 아버지아(NP)는 33.00으로서 남학생의 31.9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양육적 아버지 자아상태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자유 어린이자아(FC)는 33.75이며 남학생은 32.39로서 여학생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의 어른 자아(A)가 여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순응 어린이자아(AC)가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상태 유형

<표 IV-7>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구 분	아버지의 교육수준					
	n	M	SD	F	D	
비판적 어버이자아 (CP)	중 졸(A)	55	28.35	4.90	2.398	
	고 졸(B)	228	29.07	5.34		
	대 졸(C)	153	30.19	4.53		
양육적 어버이자아 (NP)	중 졸	55	31.15	5.12	4.390**	C>A
	고 졸	228	32.22	5.33		
	대 졸	153	33.35	5.17		
어른 자아 (A)	중 졸	55	28.51	4.08	5.549***	B.C>A
	고 졸	228	30.42	4.85		
	대 졸	153	31.43	5.23		
자유 어린이자아 (FC)	중 졸	55	31.67	6.95	3.147*	C>A
	고 졸	228	32.92	6.32		
	대 졸	153	33.76	6.22		
순응 어린이자아 (AC)	중 졸	55	31.05	5.13	0.539	
	고 졸	228	30.51	5.33		
	대 졸	153	30.38	5.46		

* p<.05, ** p<.01, *** p<.001

위의 <표 IV-7>에 의하면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적 어버이자아(NP)와 어른자아(A)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대졸' > '중졸'로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학생자녀의 A 차이에 유의함을 보였다.

자유어린이자아(FC)도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순응어린이자아(AC)는 아버지 학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AC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

결국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자녀들의 자아상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CP와 AC는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NP, A, FC는 높게 나타났다.

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유형

<표 IV-8>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구 분	어머니의 교육수준					
	n	M	SD	F	D	
비판적 어버이자아 (CP)	중 졸(A)	73	28.66	5.04	3.384*	C>A
	고 졸(B)	271	29.08	5.05		
	대 졸(C)	92	30.79	4.76		
양육적 어버이자아 (NP)	중 졸	73	31.29	5.22	2.455	
	고 졸	271	32.54	5.20		
	대 졸	92	33.27	5.56		
어른 자아 (A)	중 졸	73	29.08	4.62	5.800***	C>B, A
	고 졸	271	30.37	4.76		
	대 졸	92	32.16	5.34		
자유 어린이자아 (FC)	중 졸	73	31.84	6.69	2.599	
	고 졸	271	32.92	6.42		
	대 졸	92	34.46	5.90		
순응 어린이자아 (AC)	중 졸	73	30.00	5.24	2.138	
	고 졸	271	31.01	5.26		
	대 졸	92	29.54	5.56		

* p<.05, *** p<.001

위의 <표 IV-8>에 나타난 바를 분석해 보면 어머니 학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판적 어버이자아(CP)와 양육적 어버이자아(NP)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어른 자아(A)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Duncan 분석에 의하면 '대졸' > '고졸' = '중졸' 로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어머니학력은 대졸인 경우 자유 어린이자아(FC)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학력이 높을수록 FC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순응 어린이자아(AC)는 어머니 학력이 고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반면 대졸 집단이 AC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학생의 어른 자아(A)와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아버지와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유형

<표 IV-9> 아버지와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구분	아버지와 대화시간					
	n	M	SD	F	D	
비관적 어버이자아 CP	거의 안 함(A)	114	28.39	5.22	3.411*	D>A
	30 분 미만(B)	148	29.11	4.76		
	30분~1시간(C)	110	30.18	5.17		
양육적 어버이자아 NP	1시간 이상(D)	64	30.36	4.83	4.192**	D>A
	거의 안 함	114	31.31	5.34		
	30 분 미만	148	32.32	4.91		
어른 자아 A	30분~1시간	110	33.00	5.46	8.545***	D, C>B.A
	1시간 이상	64	34.05	5.51		
	거의 안 함	114	29.10	5.15		
자유 어린이자아 FC	30분~1시간	110	31.69	4.75	8.253***	C, D>A
	1시간 이상	64	32.20	4.46		
	거의 안 함	114	30.90	6.68		
순응 어린이자아 AC	30 분 미만	148	32.86	6.14	3.002*	A>C
	30분~1시간	110	34.68	6.41		
	1시간 이상	64	34.56	5.43		
	거의 안 함	114	31.38	5.46		
	30 분 미만	148	30.95	5.34		
	30분~1시간	110	29.51	5.07		
	1시간 이상	64	29.83	5.34		

* p<.05, ** p<.01, *** p<.001

위의 <표 IV-9>에서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비관적 어버이자아(CP)값과 양육적 어버이자아(NP)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어른 자아(A)와 자유 어린이자아(FC)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1시간 이상' > '거의 안 한다' 는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순응 어린이자아(AC)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거의 안 한다' > '30분~1시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유형

<표 IV-10>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

구 분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n	M	SD	F	D	
비관적 어버이자아 CP	거의 안 함(A)	44	27.55	5.41	2.556	
	30 분 미만(B)	116	29.17	5.31		
	30분~1시간(C)	116	29.66	4.78		
	1시간 이상(D)	160	29.82	4.85		
양육적 어버이자아 NP	거의 안 함	44	31.16	5.75	2.484	
	30 분 미만	116	31.89	5.35		
	30분~1시간	116	32.54	4.82		
	1시간 이상	160	33.23	5.43		
어른 자아 A	거의 안 함	44	29.11	5.41	7.851***	D>B. A
	30 분 미만	116	29.22	4.80		
	30분~1시간	116	30.62	4.72		
	1시간 이상	160	31.81	4.78		
자유 어린이자아 FC	거의 안 함	44	29.84	6.45	8.259***	D>C. B>A
	30 분 미만	116	32.27	5.83		
	30분~1시간	116	32.80	6.48		
	1시간 이상	160	34.71	6.34		
순응 어린이자아 AC	거의 안 함	44	31.18	5.56	3.196*	A>D
	30 분 미만	116	31.09	5.51		
	30분~1시간	116	31.16	4.78		
	1시간 이상	160	29.50	5.43		

* p<.05, *** p<.001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자아상태를 분석한 위의 <표 IV-10>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역시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양육적 어버이자아(NP)값이 높았으며, 또한 어른 자아(A)값도 높게 나타나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1시간 이상' > '30분 미만=거의 안 한다'는 집단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자유 어린이자아(FC)도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역시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1시간 이상' > '30분~1시간=30분 미만' > '거의 안 한다'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비판적 어버이자아(CP)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배경변인은 성별($t=4.325$, $p<.001$), 어머니 학력($F=3.384$, $p<.05$)과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3.411$, $p<.05$)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라서는 CP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성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높을수록 CP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양육적 어버이자아(NP)에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으로서 성별($t=-2.007$, $p<.05$), 아버지학력($F=4.390$, $p<.01$),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4.192$, $p<.01$)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어머니 학력,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NP, 즉 양육적 어버이자아상태는 여학생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어린 자아상태(A)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아버지 학력($F=5.549$, $p<.001$) 어머니 학력($F=5.800$, $p<.001$),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8.545$, $p<.001$),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7.851$, $p<.001$)으로 나타났다. 결국 A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유 어린이자아(FC)의 차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변수는 성별($t=-2.225$, $p<.05$), 아버지 학력($F=3.147$, $p<.05$),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8.253$, $p<.001$),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8.259$, $p<.001$)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FC는 여학생일수록,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응 어린이자아(AC)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3.002$, $p<.05$)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3.196$, $p<.05$)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별, 아버지 및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AC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학생의 AC는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가설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상태 분포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의 분포는 다음 <표 IV-11>와 같다.

<표 IV-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상태 분포

변 수	하위 요소	M	SD
의사소통 유형	부 개방형	31.46	8.68
	부 폐쇄형	27.72	6.59
	모 개방형	36.90	8.41
	모 폐쇄형	26.63	6.62
자아상태	비관적 어버이(CP)	29.37	5.04
	양육적 어버이(NP)	32.48	5.31
	어른 자아상태(A)	30.53	4.95
	자유 어린이 (FC)	33.06	6.41
	순응 어린이 (AC)	30.53	5.34

전체 응답값을 보면 부개방형은 31.46으로서 평균(30점)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인 반면, 모개방형은 36.90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자녀들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것을 감안하면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폐쇄형의 경우 부폐쇄형은 27.72로 평균보다 낮은 폐쇄성을 보였으며 모폐쇄형 역시 26.63으로 유사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 폐쇄성이 더 낮게 나왔다.

자아상태의 전체 응답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자유 어린이 자아상태(FC)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판적 어머니 자아상태(CP)는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분석

변인	구분	CP	NP	A	FC	AC
의사소통	부 개방형	0.137**	0.325**	0.393**	0.224**	-0.171*
	부 폐쇄형	-0.001	-0.016	-0.184**	0.028	0.262**
	모 개방형	0.172**	0.298**	0.392**	0.205**	-0.088
	모 폐쇄형	-0.041	0.002	-0.244**	-0.093	0.285*

* p<.05, ** p<.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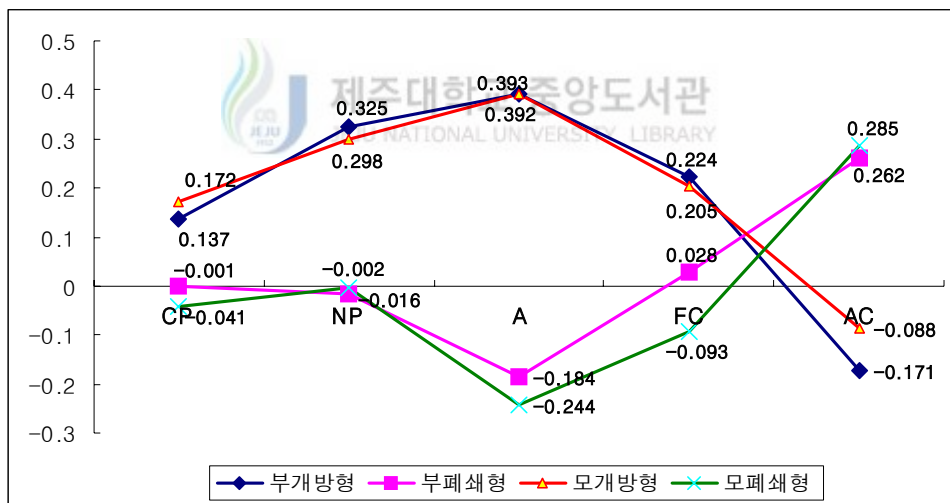
첫 번째, 부개방형 의사소통인 경우 모든 자아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른자아($r=0.393$, $p<.01$), 양육적 어머니자아($r=0.325$, $p<.01$), 자유 어린이자아($r=0.224$, $p<.01$), 비판적 어머니자아($r=0.137$, $p<.01$)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순응 어린이자아($r=-0.171$, $p<.05$)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번째, 부폐쇄형 의사소통은 어른자아(A) 및 순응 어린이자아(AC)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른자아($r=-0.184$, $p<.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순응 어린이자아($r=0.262$, $p<.01$)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각각 보였다.

세 번째, 모개방형 의사소통인 경우 순응 어린이자아(AC)를 제외한 어른 자아($r=0.392$, $p<.01$), 양육적 아버지자아($r=0.298$, $p<.01$), 자유 어린이자아 ($r=0.205$, $p<.01$), 비판적 아버지자아($r=0.172$, $p<.01$)와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부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모폐쇄형 의사소통은 어른자아(A) 및 순응 어린이자아(AC)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른자아($r=-0.244$, $p<.01$)와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순응 어린이자아($r=0.285$, $p<.05$)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부폐쇄형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의사소통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

부개방형 의사소통과 모개방형 의사소통은 AC를 제외한 4개의 자아상태 하부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일을 처리하는 행위(A)와 동정적이며 인간

적인 어머니 같은 인성(NP)이 증가하였고,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성향(FC)이 높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행동(CP)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부모에 대하여 의존하려는 성향(AC)은 반대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어른자아(A)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사에 이성적, 합리적이며, 솔직하고 결단력 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태도를 취하며, 문제해결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는 특성이 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폐쇄형 의사소통과 모폐쇄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일을 처리하는 행위(A)는 낮아졌고,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부모에 대하여 의존하려는 성향(AC)은 높아졌다.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때, 순응적인 어린이자아(AC)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사에 순응적이거나 타협적이며 잘 협조하려는 특징이 있으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며, 타인의 눈치를 살핀다든지 하며 자발성과 적극성이 없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어른자아(A)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Dussay가 제시한 A를 정점으로 하는 종형(鐘型, Bell)과 유사한 유형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이고그램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그리고 가족이 화목할수록 자녀는 어른자아(A) 및 양육적 아버지자아(NP)는 높게 나타났으며, 순종하는 어린이 자아(NC)는 낮게 나타났다는 조용현(1997)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CP, NP, A의

자아상태가 발달 형성되고 반면에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에서는 AC 자아상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유성희(2002)의 연구 결과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른자아(A)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서 부모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양육방식'과 관계되며, 부모와의 폐쇄형 의사소통은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이것은 부모의 비합리적이고,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의 영향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교류분석 이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습득시키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친밀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하고 할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들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2. 청소년의 자아상태는 배경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문제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청소년의 자아상태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에 대해 질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과 유형을 검사하기

위하여 1982년 Howard Barnes와 David H. Olson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를 민혜영(1990)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1993)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청소년용 이고그램 검사지(Ego-gram Check List)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청소년의 자아상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상태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성별, 부모학력, 대화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부개방형, 부폐쇄형, 모개방형, 모폐쇄형의 4개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개방형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 변수는 어머니 학력($F=3.477, p<.05$),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55.872, p<.001$)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15.296, p<.001$)으로 파악되었으며, 성별과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부개방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부폐쇄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존재하는 배경변수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11.655, p<.001$)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12.113,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아버지 학력 및 어머니 학력은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개방형 의사소통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으로서 어머니

니 학력($F=3.502$, $p<.05$),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13.378$, $p<.001$)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34.405$, $p<.001$)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성별,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모폐쇄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존재하는 변수로서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3.733$, $p<.05$)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8.553$, $p<.001$)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성별, 아버지 및 어머니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모폐쇄형 의사소통에서도 무엇보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모개방형 의사소통은 높게, 모폐쇄형 의사소통은 낮게 나타나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아버지와의 대화시간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모든 의사소통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변수였다. 즉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증가할수록 개방형의사소통은 높아지고 폐쇄형 의사소통은 낮아졌다. 즉, 대화시간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은 부 및 모와의 개방형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에서 청소년과 대화시간이 많은 어머니의 학력은 부개방형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가정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가설2. ‘청소년의 자아상태는 성별, 부모학력, 대화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자아상태의 5가지 변인에 대해서 각각 살펴 보았다.

비판적 어버이자아(CP)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배경변인으로는 성별($t=4.325$, $p<.001$), 어머니 학력($F=3.384$, $p<.05$)과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3.411$, $p<.05$)으로 나타났다. 즉, C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성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높을수록 CP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양육적 어버이자아(NP)에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으로서 성별($t=-2.007$, $p<.05$), 아버지학력($F=4.390$, $p<.01$),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4.192$,

p<.01)으로 나타났다. NP, 즉 양육적 아버이 자아상태는 여학생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른 자아상태(A)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아버지 학력(F=5.549, p<.001) 어머니 학력(F=5.800, p<.001),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8.845, p<.001),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5.800, p<.001)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른자아(A)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 어린이자아(FC)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변수는 성별(t=-2.225, p<.05), 아버지 학력(F=3.147, p<.05),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8.253, p<.001),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8.259, p<.001)으로 나타났다. 즉, FC는 여학생일수록,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순응 어린이자아(AC)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서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F=3.002, p<.05) 및 어머니와의 대화시간(F=3.196, p<.05)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학생의 AC는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상태의 하부변인에 모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었다. 즉 아버지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자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역시 어른자아(A), 비판적 아버지자아(FC), 순응 어린이자아(AC)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에 아버지학력은 양육적 아버지자아(NP), 어른자아(A), 자유 어린이자아(FC)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가설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부개방형 의사소통과 모개방형 의사소통은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를

제외한 4개의 자아상태 하부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어머니자아상태(A)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적 어머니자아(NP), 자유 어린이자아(FC), 비판적 어머니자아(CP)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부모에 대하여 의존하려는 성향을 지닌 순응 어린이자아(AC)는 반대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어른자아(A)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사에 이성적, 합리적이며, 솔직하고 결단력 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태도를 취하며, 문제해결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는 특성이 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어른자아(A)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Dussay가 제시한 A를 정점으로 하는 종형(Bell)과 유사한 유형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이고그램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패쇄형 의사소통과 모폐쇄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일을 처리하는 행위(A)는 낮아졌고,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부모에 대하여 의존하려는 성향(AC)은 높아졌다.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때, 자녀들은 순응 어린이자아(AC)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사에 순응적이거나 타협적이며 잘 협조하려는 특징이 있으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며, 타인의 눈치를 살핀다든지 하며 자발성과 적극성이 없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상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들의 자아상태 에너지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결론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아상태와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지각하고 있다.

둘째, 부모의 학력에서 어머니의 학력은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셋째,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가 높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양육적 어버이자아(NP)와 자유 어린이자아(FC)가 높아졌다.

넷째,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른 자아상태(A)가 높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비판적 어버이자아(CP)와, 아버지의 학력은 양육적 어버이자아(NP)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어른자아(A)와 자유 어린이자아(FC)가 높으며, 순응 어린이자아(AC)는 낮아졌다.

여섯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어른자아(A)와 양육적 어버이자아(NP), 자유어린이자아(FC),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가 높아졌다.

일곱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의존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순응어린이자아(AC)는 낮아졌다.

여덟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때, 의존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순응어린이자아(AC)는 높아지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의 특징을 지닌 어른자아(A)는 낮게 형성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개방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상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들의 자아상태에서 어른자아상태(A)를 높여주고, 순응 어린이자아(AC)를

감소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개방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류분석적 상담을 할 때, 프로그램 내용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프로그램 및 부부관계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만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설문 조사에만 국한하였으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부모와 자녀 각각에 대하여 쌍방향적인 조사와 관찰법,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질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봉규(2002). **상담이론과 실제**. 교육출판사.
- 고명규(1997). 의사교류분석적 상담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학생생활연구**, 제 18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국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보연(2000). **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 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혜진(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규수, 류태보(2001). **교류분석치료**. 형설출판사.
- 김근화(2003).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윤(2001). **중학생의 자아개념유형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희(1993). **의사거래 분석적 상담**. 이형득 편. **상담이론**, 서울:교육과학사.
- 김유숙(2001).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수 역(1988). **교류분석**. 서울:민지사.
- 김홍용(1987). **가정환경변인과 생활자세와의 관계-교류분석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2003).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학지사.
- 노선(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류태보(1996). **교류분석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성격 기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상예(2000). **고등학생의 자아상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승미(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준석(2001).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상홍(2004).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성자(1985).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홍익재.
- 스기다미네야스(1992). **교류분석**. 김현주역, 서울:민지사
- 안정현(2000).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우재현(2003).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 프로그램**. 정암서원.
- 유성희(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순임 외 14인(1995). **현대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도영외(1999). **교류분석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이성태(1991). **이해중심 교류분석과 재경험중심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자율성과 생활자세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정우, 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 이혜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

-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근화(1980).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가정관리에 대한 의식구조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장호선(1986).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명희(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문자(2003).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성란(1003). **의사거래 분석의 자아상태 활성화 프로그램이 생활자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정영웅(1986). **Transactional Analysis 상담을 통한 인간관계 개선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은정(2002).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자녀-부모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태권(1997).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용현(1997). **자녀가 지각한 가정환경 변인과 이고그램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경(1992). **부모·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심리적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정기(1998).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분석 이론 고찰**.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5집, 부산여자대학교.
-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홍규(2000). **아버지와 자녀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기선(1985). *커뮤니케이션론*. 서울:나남
- 황경연(1999). *교류분석 집단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Adams, Bert. N(1980). *The family : asociological interpretation*. Houghton Millin.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6-447.
- Bern. E(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hychotherapy*. New York : Grove Press.
- Bern. E(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 Grove Press.
- Cooley, C. H.(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1987). Family reac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p. 705-715.
- Dusay, J., Ego-grams. New York: *Harper and Row*, 1977, Other editions: New York: Bantam, 1980.
- Dusay, J.M(1977). *Ego-gram : How I see yoy and see me*. New York : Grove Press.
- Erikson, E.H(1959),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Friedman, R. A.(1979). *transactional analysis as a theoretical change model with university student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Galvin, K. & Brommel, B.(1982).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GlenviewIL ; Scott, Foresman and Co.
- Gorden, T.(1975). *PET : Parent Effect inveness Training*,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Inc.

- Goulding, R., and Goulding, M., *The power is in the patient*. San Francisco: TA Press, 1978.
- Gross, I. H., Grandall, E. W. and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 Hawkins, J. L. Weisberg, C. and Ray, D. L.(199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9(3).
- Heter, R.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to measure ego states with some applications to social and comparative psychiatry.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1979. 9.
- Knezevich(1962). S. J. *Administration of public education*. Harper & Brothers.
- Kennedy, C, E. (1971). *Patterns of parent-student Communi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513.
- Myer, G.E. & Myer, M.T.(1973).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 a laboratory approach*. McGraw Hill Inc.
- Olson, D. H., McCubbin, H. I., Bare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lishing.
- Rueter, Martha A. & Conger, Rand D.(1995). *A intecedents of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7. ERIC Reports, EJ506221.
- Satir, Virginial.(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Their Ego-State

Yang, Min-Cheol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Soo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communication types the child recognizes and the child's ego-state. The topics for the study are followed

First, how do the parents' communication types the child recognizes differ on the background variation?

Second, how does the child's ego-state relate with the background variation?

Thir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the child recognizes and the child's ego-state?

To do these studies I set out a questionnaire about the communication types and the ego-state targeti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live in Seogwipo-si and Namwon-eup

The used questionnaire on this study is PACI which is produced by Howard Barnes and David H. Olson in 1982 to study the parents' communication level and the types which is translated by Min Hye-Young(1990) and verified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Ego-gram Check List which Woo Jae-hyun(1993) of Korean transactional Analysis Association developed for children are used as the tool to measure the child's ego-state

I used SPSS to put the collected data into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o figure out the subject's demographic trait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degree of child ego-state and T-test, one-way ANOVA to verify the gap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child ego-state depending on the background variation and the Pearson's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 and the ego-state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nversation time with father and mother are both meaningful variation on the parents' communication types the child recognize. In other words, as the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 increases open communication types also increase and close communication types decrease.

Second, the scholarship of mother cause the meaningful difference on the open communication types with father and mother. In other words the mother's scholarship who have a lot of conversation time with child in home also influences the father's open communication type and is found to be essential factor in whole family's open communication type

Third conversation time with father was the factor which influences on all of the sub-variations of ego-state. In short, the conversation

with father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shaping and developing of child's ego

Fourth conversation time with mother also cause significant difference on A(Adult Ego), FC(Free Child Ego), and AC(Adapted Child Ego)

Besides the scholarship of father causes meaningful difference on NP(Nurturing Parent Ego), A(Adult Ego) and FC(Free Child Ego), and the gender causes difference on CP(Critical Parent Ego), NP(Nurturing Parent Ego) and FC(Free Child Ego)

Fifth in the resul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the child recognizes and the child ego-state the father's open type shows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all of the five sub-factors of ego-state In the case of mother's open type shows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the four sub-factors except AC(Adapted Child Ego) of ego-state

Sixth father's and mother's close types show (-)relationship with A(Adult Ego) and (+)relationship with AC(Adapted Child Ego)

Putting all these things together the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open communication types and also influences on the child ego-state. Especially in terms that parents' open communication type reinforces the child's ego-state energy the harmonious convers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 should be essential.

부 록

<부록 1> 배경 변인 검사지

<부록 2>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

<부록 3> 자아상태 유형 검사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과일이 무르익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평소 부모님과의 대화 유형과 성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주제로 대학원 학위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사실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한 본 설문에 대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본 설문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민철

<부록 2>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

다음 문항들은 평소 여러분이 **아버지**와의 대화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대화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칸에 **√** 표 해 주십시오.(아버지가 안 계신 학생은 다음 장으로 넘겨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사항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2	때때로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3	아버지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5	우리 아버지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편이다.					
6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7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다.					
9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께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10	아버지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11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2	나는 아버지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14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15	아버지께 나의 고민을 의논드리지만 의논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16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말씀 드릴 수 있다.					
17	나의 속마음을 아버지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18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					
19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20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다음 문항들은 평소 여러분이 어머니와의 대화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여러분과 어머니와의 대화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칸에 √ 표 해 주십시오.(어머니가 안계신 학생은 다음 장으로 넘겨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사항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2	때때로 나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3	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5	우리 어머니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편이다.					
6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7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와 의논할 수 있다.					
9	나는 어머니께 어머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10	어머니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11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2	나는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14	어머니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15	어머니께 나의 고민을 의논드리지만 의논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16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다.					
17	나의 속마음을 어머니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18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					
19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20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어머니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부록 3> 자아상태 유형 검사지

이 검사는 여러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솔직히 답해주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순간 떠오르는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 통 이 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무엇이라도 단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2	나는 다른 사람이 길을 물어오면 친절히 가르쳐 준다.					
3	나는 여러 가지 책을 잘 보는 편이다.					
4	나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5	나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행동하는 버릇이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지 못한다.					
7	나는 친구나 후배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다.					
8	나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편이다.					
9	나는 여럿이 어울려 신나게 이야기하거나 노는 것을 좋아한다.					
10	나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참는 일이 많다					
11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남을 돌보는 일을 좋아한다.					
13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편이다.					
14	나는 평소에 “와 좋다” “멋있다” 등의 감탄사를 잘 쓰는 편이다.					
15	나는 열등감이 강한 편이다.					
16	나는 나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한다.					
17	나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려고 애쓴다.					
18	나는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잘 알아본 후에 행동하는 편이다.					
19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편이다.					
20	나는 무엇인가 부탁 받으면 곧 실천하지 못하고 느린 편이다.					
21	나는 예의범절에 대하여 엄격하게 배웠다.					
22	나는 실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거나 격려해준다.					
23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빨리 처리하는 편이다.					
24	나는 명랑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잘 치는 편이다.					
25	나는 무리를 해서라도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번호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 통 이 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시작하면 끝장을 보지 않으면 못 견뎌낸다.					
27	나는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을 즐겨한다.					
28	나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묻거나 상의해 보는 편이다.					
29	나는 기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편이다.					
30	나의 생각보다는 부모나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31	나는 부모님이 시키면 그대로 실행한다.					
32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한다.					
33	나는 미신이나 점치는 것 등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34	나는 아무와도 농담이나 재미있는 말을 잘 하는 편이다.					
35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할 때가 많다.					
36	나는 어른이 되면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겠다.					
37	나는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나무라지 않고 용서해 준다.					
38	나는 공부나 일을 계획대로 잘 처리해 나가는 편이다.					
39	나는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40	나는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가 흔히 있다.					
41	나는 평소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42	나는 인정이 많은 편이다.					
43	나는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조심하거나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					
44	나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만 마음이 편안하다.					
45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다.					
46	나는 시간이나 금전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7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48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화내지 않고 대화를 잘하는 편이다.					
49	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다.					
50	나는 속으로는 불만이지만 겉으로는 만족한 것처럼 행동한다.					

0 혹시나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